



## 경제통통



### FOCUS

- 서울시, 한 달간 99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해법 설계
- 서울시, SIBAC 총회서 '혁신을 통한 도시 성장' 논의

### ZOOM IN

- 16개국 40여 개 도시·단체, 서울에서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확인
- 서울시, 서민 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 HOT ISSUE

- 서울시, 교실영화관 '찾아가는 좋은영화 감상회' 개최
- 서울시, 국내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김가영 gykim@seoul.go.kr

## FOCUS | 01

# 서울시, 한 달간 99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해법 설계

서울시가 10월 한 달간 99개의 '일자리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 3,900명을 만나는 일자리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일자리대장정은 일자리의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질에 주목하고 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해

결과 일자리 핵심인 민간기업, 산업계, 노동계 등이 총출동해 함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모든 일의 1순위는 시민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900여 명의 시민과  
450여 개  
일자리제안 공유,  
실질적 일자리대책  
기반 마련**

매일 12시간 이상 현장에서 진행된 '서울 일자리대장정'을 통해 접수된 요청·제안은 450여 건이었다. 서울시는 이 제안사항을 토대로 일자리대장정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했다.

첫째, '청년'이 서울경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스스로 상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시장의 상설화, 주민주도 지역재생 모델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대책 등을 수립한다.

둘째,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유통전문가 양성, 외자펀드 등을 통해 첨단기술·혁신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 활성화도 지원한다.

셋째, 직장맘센터 확대, 장애인 생산물 판로 모색, 쪽방촌 협업공간 확대, 중장년 경력전환 교육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책도 마련한다.

넷째, 시민의 기본적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담 옴부즈만을 확대 운영하고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도 개발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시민과 기업제안에 대해 월별, 분기별 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6년 예산에 1,903억 원(64개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

## 서울시, SIBAC 총회서 ‘혁신을 통한 도시 성장’ 논의

전 세계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글로벌 CEO와 경제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혁신을 통한 도시의 성장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0월 30일 ‘혁신을 통한 성장’을 주제로 ‘2015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총회’



를 개최했는데, 서울이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도시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혁신적 일자리 창출, 글로벌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의 서울의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혁신을 통한  
테스트베드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주제 세계 선진도시  
사례 적용점 모색**

첫 번째 세션 주제는 <혁신을 통한 테스트베드 창출>로 ‘롤랜드 부시(Roland Busch)’ 지멘스 경영이사회 멤버, ‘마르코 트론케티 프로베라(Marco Tronchetti Provera)’ 피렐리 회장 등이 세계 선도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서울에의 적용점을 찾았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서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리차드 스미스(Richard Smith)’ 핑커톤재단 회장, ‘마조리 양(Marjorie Yang)’ 에스켈그룹 회장 등이 스마트 도시 서울의 강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주제는 <적정주택 혁신방안>으로 ‘도미니크 바튼(Dominic Barton)’ 맥킨지앤컴퍼니 글로벌회장, ‘노부유키 고가(Nomuyuki Koga)’ 노무라 홀딩스 이사회장, ‘장-루이 쇼사드(Jean-Louis Chaussade)’ 수에즈 환경 CEO가 서울 환경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세션종료 후에는 서울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힘쓴 ▲노부유키 고가(노무라 홀딩스 및 노무라 증권 이사회장) ▲키스 뉴튼(前 엑센츄어 책임파트너)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SIBAC는 2001년 설립된 서울시장 정책자문기구로 현재 22명의 세계 유명기업 CEO와 5명의 자문역이 매년 서울시장에게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회 총회를 개최해 279건의 자문을 받았고 그중 235건(85%)을 시정에 반영했다.



## ZOOM IN | 01

# 16개국 40여 개 도시·단체, 서울에서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확인

서울시는 11월 4일~5일 서울시청과 롯데호텔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의체(GSEF) 운영위원회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6개국 40여 개 도시와 기관이 참여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자리였다.

GSEF는 지난 2013년에 설립되어 지난해 첫 총회에서 서울시가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올해 첫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몬트리올·타이베이·바르샤바 등 해외도시,  
영로컬리티, ILO 등  
40여 개 기관 참여**

참여도시 및 정부기구는 ▲몬트리올(캐나다) ▲바르샤바(폴란드) ▲대만(타이페이) 등 총 6개 도시이며, 민간단체는 ▲영국 로컬리티 ▲프랑스 사회적기업 그룹 SOS ▲캐나다 상티에 등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참여해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협력에 앞장섰다.

행사 첫날에는 참여자들과 서울혁신파크, 성수동 사회적경제 특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현장을 찾아 서울의 우수한 사회적경제 지역을 해외 도시·기관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사회적경제 정책,  
지속가능개발,  
사회복지 등 주제로  
4개의 국제세미나 개최**

둘째 날에는 ▲사회적경제와 일자리 ▲지속가능개발목표 ▲사회성과보 상사업 등을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가 세계 도시·단체 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과 경험을 나누고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라며, 서울시는 GSEF 의장 도시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세계 사회적경제 연대의 리더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 ZOOM IN I 02

# 서울시, 서민 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 주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추심금지 사항 제시

이번에 발표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을 사전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시에는 시효완성을 적극 주장하여, 상환 거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서울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대한 원금과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한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오래된 채무의 변제요구를 받은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출 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에는 ‘눈물그만’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HOT ISSUE | 01

# 서울시, 교실영화관 ‘찾아가는 좋은영화 감상회’ 개최

서울시가 오는 12월 29일(화)까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좋은영화 감상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노원구 상경중, 강동구 천일중, 강북구 미양고, 양천구 광영고 등 서울시내 4개 중·고등학교 1,757명(3학년 687명, 2학년 556명, 1학년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수 독립영화와 다큐영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작품 위주로 상영된다.

상영작품은 ▲피부색깔=꿀색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달팽이의 별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 총 4편이다.

영화 관람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 영화창작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고력을 높여주고, 영화창작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 해결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시범상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서울시교육청·학교·자치구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찾아가는 좋은 영화 작품선정 및 대상학교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좋은 영화 감상회’의 일정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국내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서울시는 11월 6일 서울시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CJ E&M 게임채널 OG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상암동에 개관할 예정인 국내최대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운영 활성화와 e스포츠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익 목적의 사업 운영과 건전한 게임, e스포츠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e스

포츠 아카이브를 구축해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축적하고 미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CJ E&M OGN,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운영 협의회'를 구성해 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마케팅 등 e스포츠 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 상암동에 문을 여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8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200석 규모의 보조 경기장이 6개 층에 걸쳐 조성되었고, 초대형 LED 스크린과 최신 음향시설, 넉넉한 좌석과 식음료 매점 등이 더해져 팬들에게 최적의 관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스포츠 경기장 운영 사업자인 CJ E&M 주식회사 OGN채널은 100억 원 이상의 제반 시설 구축비용을 투자하고,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공익 목적의 다양한 e스포츠대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운영 등 e스포츠 경기장을 시민들의 보편적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